

세계 휴대전화 가입자, 2009년까지 25억 명

미국의 하이테크 시장조사 회사 In-Stat/MDR는 지난 7월28일 과거 수년에 걸쳐서 둔화 경향에 있던 세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다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 2009년까지 25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In-Stat에 의하면, 가입자의 신장을 온 여전히 중국이 견인하는 형태지만 인도 등의 남부아시아에서도 신장을 증대가 전망된다. 반면 유럽의 성장세는 향후도 침체를 예측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Nextel이 거의 독점 제공하고 있는 iDEN의 대폭 증가가 전망되지만 머지않아 축소될 것이며, 가입자는 CDMA 등 다른 방식으로 쉬프트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통신 방식으로는 2007년까지 GSM이 순조로운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2008년 이후는 캐리어가 가입자를 WCDMA에 이행시켜, GSM의 성장은 감속할 것이다. 2009년에는 가입자 수 베이스의 쉐어로 CDMA가 GSM을 제치고 선두에 설 것이다”라고 In-Stat의 상급 애널리스트 켄·하이아즈 씨는 말했다.

■ URL <http://www.instat.com/press.asp?ID=1035&sku=IN0401276GW>

일, 야노 경제 연구소 2004년은 세대 교체의 해

일본의 야노 경제 연구소는 ‘2004년판 국내 이동통신 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올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72만명 증가하여 총 8,624만 3,700명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04년도 캐리어별 순증 수는 KDDI가 호조를 유지해 263만명, 그 다음으로 도코모가 183만명, 보더 폰은 35만 6천명이라고 전망했다.

2004년도 휴대전화 출하 대수는 카메라 부착 휴대전화로 교체하는 수요도 많지 않아 전년대비 8%감소한 4,640만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2004년도 일본 휴대전화 시장은 3G로의 세대 교체가 가속화하여 PDC단말의 출하가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보더 폰이 투입하는 해외 메이커제 Vodafone Global Standard 단말에 대한 시장 영향은 전무로 보고 있다. 또 PHS에서는 데이터 통신 수요를 중심으로 DDI포켓이 분통, 256kbps에의 고속화나 아스텔 그룹과의 제휴 등으로 사업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고 동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2004년도 가입자 수는 52만7,100명 감소의 460만8,500명이 될 전망.

동연구소에서는 2003년도의 휴대전화를 견인한 카메라 부착 휴대전화는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에 달해 올해에는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반면 광학 줌이나 오토 포커스 기능 등의 부가 기능 외 QR코드 리더와 같은 입력 장치로서의 기능이 중요해 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접촉 IC카드 탑재 단말이나 지상 디지털 방송 대응기에 가세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이나 음악 컨텐츠를 즐기기 위한 스토리지 미디어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 URL <http://www.yano.co.jp/press/2004/040826.html>

일 NEC, 중국 휴대전화 사업 신브랜드·제품 전략 발표

일본 NEC는 지난 5월 중국의 휴대전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신체제 'NEC통신(중국)'을 세운 후 최근 사업 확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브랜드·제품 전략을 발표했다.

'NEC통신(중국)'은 '자신내(영어: Get Personal)'라고 하는 슬로건을 채용해, NEC의 브랜드 및 제품 확대판매를 위한 캠페인과 제품 전개를 실시한다.

NEC는 이번 브랜드 전략에 근거하는 제품 전개를 지금까지보다 폭넓은 유저 층을 복수의 세그먼트(segment)로 분류해 각각의 세그먼트 유저 요구에 디자인과 기능 양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에 따라 발표된 제품은 NEC의 2.5세대 제품으로서는 처음으로 스트레이트 형의 'N109', 'N100'과 폴더 형태의 'N110' 등 3기종 7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보다 폭넓은 층을 타겟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세련된 디자인에 30만 화소 카메라, 1.8인치 TFT칼라 액정(65,000색)을 탑재, JAVA, MMS, 모션jpeg등에 대응한 제품이다.

NEC는 향후 NEC통신(중국) 신체제 아래 판매 마케팅 체제 강화나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여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굳혀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신브랜드·제품 전략에 의해 타겟층을 확충, 우선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200만대 출하, 20기종 이상 투입을 실현하고, 중기적으로는 중국 최고의 모바일 솔루션 컨퍼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URL <http://www.nec.co.jp/press/ja/0408/2402.html>



미 Verizon, 휴대전화 스팸 메일 업자에게 항구 금지 명령

미 휴대전화 사업자인 Verizon Wireless는 지난 8월30일 동사 가입자의 휴대전화에 스팸 메일을 보낸 스팸메일에 대해 항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금지 명령을 선고받은 것은 로드아일랜드 주의 제이 코브·브라운씨로, 계획적인 스팸메일 공격을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 트伦顿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의 메어리·쿠퍼 판사는 브라운씨에 대해 Verizon가입자에게 스팸메일 송신을 항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브라운 씨는 대출을 권유하는 쇼트 텍스트 메세지 송신 외 유저가 성인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스팸 메일을 보냈었다. 또한 스팸 메일 송신에 있어서는 무관한 개인 주소를 사용해 송신원을 위장하고 있었다고 Verizon Wireless는 밝혔다.

한편 미국의 휴대전화는 메일을 수신할 때 마다 요금이 들어 Verizon은 작년에도 휴대전화 스팸메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일으키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휴대전화 스팸메일 금지를 정하고 있다.

- URL <http://www.prnewswire.com/cgi-bin/stories.pl?ACCT=109&STORY=/www/story/08-30-2004/0002240355&EDATE=>

차세대 무선 기술 ZigBee, 2006년부터 본격 보급

미국의 조사회사 ABI Research는 지난 8월10일 전력 절약성이 뛰어난 차세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표준인 'ZigBee'가 3년 이내에 급성장을 이룬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ABI에 의하면 ZigBee채용 디바이스 출하 대수는 2005년에 약 100만대를 기록하고, 2006년에는 80배 이상으로 증가해 8000만대를 돌파한다고 한다.

ABI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 로페스씨는 ZigBee채용 디바이스는 우선 산업분야로 채용이 진행되어 1년 후 홈네트워킹 분야에 퍼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 그는 ZigBee가 2006년에 급성장을 이루는 이유로서 ▲ ZigBee(802.15.4b)가 승인되며, ▲ 주로 구미 메이커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ZigBee IC벤더가 거대한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 URL http://j2k.naver.com/j2k_frame.php/korean/www.abiresearch.com/abiprdisplay2.jsp?pressid=308

미 VoIP가입자, 2008년에는 100배 전망

미국의 조사회사 Yankee Group이 지난 8월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VoIP가입자는 금년 말까지 100만에 임박하고, 2008년 말까지는 1750만세대가 가입할 전망이다. 이것은 2003년말의 13만과 비교해 100배 이상 되는 수치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VoIP는 오랜 세월 테스트를 거쳐 간신히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말하고, Vonage의 성공을 계기로 통신 대기업인 AT&T, Verizon, Qwest가 금년 연달아 로컬 VoIP전략을 밝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각사는 시장의 기세를 탈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통신 회사는 전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식, 마케팅, 서포트, 브랜드 인지도를 보람있게 쓸 수가 있다." Yankee Group의 소비자 기술&서비스 담당 상급애널리스트인 케이트 · 그리핀씨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 URL http://www.yankeegroup.com/public/news_releases/news_release_detail.jsp?ID=PressReleases/news_08302004_cts.htm

미 휴대 디지털 AV플레이어 시장, 금년 7배 급성장

미국의 조사회사 In-Stat/MDR는 휴대형 디지털 AV플레이어가 올해 700%의 급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사가 지난 8월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소형형의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 제품 분야는 향후 5년간은 성장을 계속해 2008년까지 평균 성장률은 179%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In-Stat/MDR의 업계 어널리스트인 신디 · 마카리씨는 “현재는 디바이스 자체 가격도 비싸고, 스스로 컨텐츠를 입수하고 있는 유저용이다. 이 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의 입수가 용이하게 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제품 확산이 시작되는 것은 비디오 컨텐츠가 다운로드 가능하게되고 나서이다”라고 설명한다.

동 조사에 의하면 현재 디바이스의 대부분은 18~2.5인치의 20G바이트 드라이브를 갖춘 것으로, 부품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따라 용량은 올라간다고 한다. OS는 대부분이 Microsoft의 Portable Media Center(PMC) 플랫폼이다. In-Stat/MDR의 예상으로는 PMC의 쉐어는 금년에 약 25%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현재와 향후 나오는 제품의 대부분이 400달러로부터 600달러의 가격대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내에 이 가격이 급격하게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동 조사에서는 보고 있다.

- URL http://j2k.naver.com/j2k_frame.php/korean/www.instat.com/press.asp?ID=1055&sku=IN0401162ID

일 폐가소, 골 전도 핸즈 프리 헤드셋 판매

일본의 폐가소사는 골 전도로 핸즈 프리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전화용 헤드셋 ‘VONIA 휴대전화 · PHS용 골 전도 헤드셋 테르테르본 HP-90S’을 9월초 순에 발매한다. 가격은 19,800엔.

이 제품은 좌우 관자놀이에 부착해 뼈를 통하여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전용의 핸즈 프리 헤드셋로, 휴대전화의 이어 폰 마이크 단자에 접속해 이용하며, 케이블은 핀 형 이어 폰 잭이 된다. 또한 어댑터를 통해 평형 이어 폰 단자로도 사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핸즈 프리 헤드셋과 달리 뼈 전도 방식이기 때문에 귀를 막을 필요가 없어 운전 중에 외부 소리를 알아 듣기 쉽다고 한다.

폐가소는 일본에서 11월1일부터 개정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에 벌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발매한다고 밝혔다.

- URL : <http://vibone.jp/90s.html>

